

제목: 노무현 대통령 인터넷 토론

인터넷을 관중하는 수많은 네티즌들과 청장년 실업자들을 앞에 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시작서부터 진행자와 농담을 주고 받는 등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불량했다. 조금 토론이 진행된 후에는 "네티즌들 반응이 시큰둥 하면 우리 빨리 시장을 접든지 빨리 진행해 나갑시다"는 등 네티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시종일관 빈정대는 말투로 토론에 임해 시작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봐왔던 네티즌으로서 매우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청와대 민원실에 한마디 의견을 던지려 전화를 했더니만 전화받는 사람은 없고 전화번호와 메시지만 남기라는 말뿐 며칠 몇달 몇년이 지나도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 세금으로 봉급받으며 나라를 다스리는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아질 수 없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대응해 올리는 글이 아니며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현 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빈정대고 농담따먹기나 하는 정도라면 통치자의 수준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뜻이다. 아님 어떤 계산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네티즌을 무시하는~ 어떤것)

난 중간에 대통령이 계속 빈정대는 투로 토론에 임해서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외출을 나갔지만 사회적 함정의 피해자로서 일말의 희망을 기대했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실망이 크고 분개를 금할 수 없었다.

참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인가?

제목: 베트남처녀 상품화

나도 베트남처녀를 상품인양 취급하려는 결혼중개업소들의 태도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실제로 그런식으로 기사를 썼다면 돌을 맞아도 씹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국민간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양태들입니다.

제목: 평택 데모

우리나라가 왜 힘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국방력을 미국한테 의존해야 합니까? 이제 북한으로하여금 문호개방을 이끌어내어 동북아안보체제의 새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념대립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내실있는 국방력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북한 등 다양한 국가와 경제교류를 하면서 자주외교, 외교안보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노무현 정권 심각합니다. 댓글

MBC는 믿을만한 곳이 못되고 포탈은 믿을만한 곳이다라는 특정한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행태들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도 체제는 지지하지만 네티즌저널리즘은 지지하지 않는다"와 같이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마술같이 섞인 카드를 보여주는 언론들의 행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언론이 왜 월드컵에 열광하면서도 인터넷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어째서 그 폐해만 지적하고 있는지 왜 포탈은 인터넷의 가능성을 알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그 저의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토론인프라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미 기존 매스미디어는 과거 향수에 젖어 자신들의 언론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그들은 체제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거처럼 자신들의 입김을 강화해나가려 할 것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호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력과 매스미디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다름아닌 국민들 편에 선 네티즌의 목소리란 점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네티즌 목소리는 정말로 전국방방곡곡 울려 퍼질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각종 포탈에 산재해 있던 블로그가 하나둘씩 反네티즌세력에 의해 편집되어 그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이 축적 불가능한 이런 게시판만 남게 되었지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인터넷문화 측면에 있어서나 크나큰 퇴보입니다. 오히려 반네티즌세력의 저항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제 포탈 블로그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열렬블로거의 목소리는 태풍의 핵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게 폭발해 과거처럼 태풍의 화오리처럼 여론의 주도세력으로 불쑥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네티즌의 목소리가 가장 정직하고 믿을만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진단하는 매스미디어와 포탈의 구조적 이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전에 제가 여러번 댓글로 구술한 적이 있지만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매스미디어나 포탈이 마술같이 보여주는 여러가지 카드 중에 어느것은 진짜이고 어느것은 조작된 것인지 구별할줄 아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란 것이 원래 가짜와 진짜를 섞어 여론을 원하는 쪽으로 이끌도록 지금까지 진화해왔기 때문에 미디어를 바라보는데 있어 이같은 관점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요근래 한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북한 미사일시험발사 보도에 있어서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과 "미사일 시험발사"라고 구분해서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도해 버리면 어느대상을 향해 미사일 발사를 한다는건지 국민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매스미디어는 인터넷을 믿을수 없는 언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마술이 진짜라고 선전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제목: 노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 창출만으론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복지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직업수행이 가능한 사람들의 얘기가구요 일자리 창출도 그나마 인력수급불균형으로 제대로 취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업적 취약계층을 위한 거국적이고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올릴 문서2.txt

지금은 일자리 만들어 줄테니 니가 알아서 정상인들과 똑같이 벌어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식의 발상으로 이런 취약계층의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제목: 윈도우 해킹과 보안

난 지금까지 그 많은 패치 다 깔고 백신 설치했지만 근본적인 해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많은 작업들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작업일지도 모른다는 회의감까지 든다. 이미 많은 해킹경험을 당했고 그런 일들이 컴퓨팅생활을 불신감으로 가득차게 만들었다.

제목: 노무현 조카 사행성 게임 연루

어제 뉴스를 보니 조카가 성인오락실 게임기 회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미를 제공할만 했더군요. 적어도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하며 이름값은 하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중요한건 이제부터.. 이런 사행성 퇴폐산업을 뿌리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애지중지했던 조카가 있지만 이 놈이 삼촌을 속이고 방자한 짓을 도맡아 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노대통령님도 그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셔야겠습니다.

노대통령님이 진정으로 퇴폐성/사행성 성인오락기 사업을 뿌리뽑을 의지가 있으시다면 휘하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관련법안을 입안하여 개정하고 청산작업을 마무리해 다시는 망국적인 성인오락실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실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카에게 했던것처럼 노대통령님도 그렇게 하셔야 국민들도 노대통령을 믿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저도 조선일보와 수구세력들이 조카와 노대통령을 결부시키려 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외삼촌인 저는 조카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허나 조카는 그 뜻을 여러번 저버렸습니다. 노대통령께서도 노대통령 조카에게 깨끗한 오락문화를 위한 따끔한 일벌백계를 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요사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방금 인터넷에서 MBC뉴스를 보았는데 국회문광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들이 연루됐을지도 모르는 상품권발행 및 관계법령 입법에 관해 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주장하더군요.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습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는 또한 문광부, 영등위(영상등급심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돼 있는듯 보이니까 그 고질적인 인허가 비리도 제대로 척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허잡한 글들도 좀 정리가 됐으면 하구요.

제목: 사행성 게임기 운반

공무원들이란게 다 이렇다니까...뻔뻔하고 잣대 들이대며 책임회피하고 조직적으로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는데다 인허가로 뭐 챙길것 없나 그 궁리만 하는 자들... 이 중 틀린말 있나요?

제목: 법사위 개혁법안 계류

정말 심각하네요. 국회의원님들 좋은데에다 힘좀 써보세요. 맨날 줄속으로 법안 처리하시지 마시고. 줄속처리하는 여전하다고 들었는데 계류중인 법안도 무지 많구요, 우리 제대로 합시다.

제목: 자유게시판에 왜 주민번호?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게임업주들이 많은것 같군요.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주민번호 입력받는 영등위도 맘에 안들고 여기와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업주들도 맘에 안드네요. 전 어제 문광위,영등위,게임산업개발원에 전화해서 목소리를 외쳐가며 도박산업을 퇴폐성과 비리를 지적했습니다. 이젠 자신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국민을 생각해서 자중합시다. 적법한 청산절차를 밟으세요.

제목: 아동음란물 소지 처벌 제안

정말 어이없는 제안이군. 자기는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해서 슷처녀 슷총각이 널린 세상에 결혼한 여자가 아동포르노를 논해. 어이없다. 이 우주에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합시다.

— —

제목: 바다이야기 책임

이번 방송 언론들의 취재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이 막 성장하려고 하는 순간 시의 적절하게 튀어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무성한 비리이야기는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보다 많이 확대보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리는 성장할때도 도사리지만 최고조점에 도달하고 포화상태에 이르렀을때 숨어들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행성 게임의 확장을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번 취재의 의미가 있죠.

제목: 차량내 공기 정화

차도옆 인도의 공기가 형편없이 악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량내 공기가 정화될수 있겠습니까? 당국은

생색만 날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제목: 일본인과 교류

이게 바로 언론에서 비취지지 않는 민간인들 사이에서 우러나는 참모습인것 같다. 오랜만에 뉴스같은 뉴스를 접해서 참 반가웠다. 우리는 언론이 만들어내는 나무를 보지 말고 실생활에서 접하는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제목: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

요즘 뉴스에 대한 지적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정부도 재정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한 다음에 언론에 대해 이런 것들을 요구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정부 세출이나 세입구조를 전산화해서 부처별로 국민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면 한점의혹이 없겠쥬.

제목: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

"지역건설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 소액수의계약을 상향조정 한다" 그것도 1억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 참으로 한심한 정책이군요.

가뜩이나 말이 많은 수의계약이 더 금액이 붙었으니 좋은 소식만은 아니네요.

제목: 오만한 북한정부는 들어라.

아래는 오늘 낮12시에 방송됐던 MBC뉴스의 보도내용이다.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북한 체제 당국자들의 이중성과 배은망덕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떠들고 나서는 정작 ABC기자한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뻔뻔한 이중성과 협박, 정말 그 체제 당국자들의 부도덕성과 교활함에 넋절머리가 난다. 지금까지 남한이 북측에게 남북협력기금에서 온갖 비료 및 식량, 시멘트, 전기 등 수조원에 달하는 대북물자를 일방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북한 장성이 했다는 것은 남측을 민족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지금 이 전략적이고 이용가치가 있는 이웃국가로밖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본 필자는 북한의 불량한 대남정책에 분명하게 분노하는 바이며 이는 차후에 있는 UN제재 및 남북협력사업에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UN제재를 통해서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북한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어선 아니되며 상기와 같은 인식이 깔려있는 북한당국자들에게 어떠한 물자도 일방적으로 지원되어선 아니된다고 본다. 이젠 금강산사업도 철저한 수익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을 따져서 존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개성공단 사업은 협력사업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에 북한이 남측에게 어떠한 핵도발의 위협이나 발언으로 경거망동을 한다면 남측도 그에 상응하는 핵핵우산이나 자체 핵개발로써 그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북측 장성이 전쟁이 한반도에서 날 거라고 언급한 이상 핵우산이 불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핵개발에 남측도 발빠르게 착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핵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핵억지력에 문제가 생긴다.

모든 불행의 씨앗은 체제당사자들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서 비롯된다. 언론의 책임이 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말이다. 이젠 남측도 죽음을 불사하고 북측의 오만한 도발적 언행에 일대일 대응해야 하며 전쟁이 핵이든 무엇이든 상호억지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군사력 균형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체제당사자들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앞으로 경거망동을 삼가고 주변국들의 심사를 건드리는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하는 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북이 핵을 만약 남측에 사용한다면 북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점 명심하길 바란다.

=====

"굴복 강요시 전쟁"

2006. 10. 20

● 앵커 :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북한군 장성이 밝혔습니다. 굴복을 강요하면 전쟁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진숙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리찬복 북한군 상장은 북한에서 취재중인 A B C 기자에게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굴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자 : 리찬복 상장은 이어서 어디서 전쟁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 상장은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는 말을 중단해 달라면

서 이는 북한국민 모두가 부시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즉각반응을 보였습니다.

● 기자 : 스노우 대변인은 이어서 지역이 전쟁 직전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습니다.

제재 강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간 말의 전쟁도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공방과 함께 북한 정권교체론까지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 B C 뉴스 이진숙입니다.

[세계][뉴스투데이]이진숙 특파원

제목: 공무원들의 압싹함. "어디신가요?"

내가 요사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많이 들르고 질문과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꼭 담당 공무원들과 통화해 성공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멘트가 "어디신가요?"이다.

그래서 필자가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멘트가 민원해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재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어디신가요?"는 "당신은 힘있는 기관의 소속인가요? 힘없는 개인 소속인가요?" 를 묻는 질문이란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전화로 아무리 애원을 하고 몇번을 건의해도 묵살해 버리고 관심밖에 두는 공무원들의 근무행태가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것이다.

국민중의 한사람이 공무원에게 용건이 있어 전화를 했으면 그것이 언론이든지 힘있는 기관의 소속이든지 아님 진짜 국민의 한사람인지 상관없이 성실히 전화에 응해야 하는데 민원이라도 올릴라치면 소속부터 묻고마는 압싹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정말 이젠 난질머리가 난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

이젠 제발 그런 잔머리는 집어치우고 정말 힘없는 국민이 용건이 있어 힘들게 전화를 했으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국정에 반영했으면 싶다. 한번에 통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정확한 소관부서와 직원을 연결하려면 여러번의 통화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일개 국민이구나 하고 건의를 묵살하거나 차일피일 민원을 미루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보이란 얘기가.

국회를 비롯해 여러 관청을 돌아다녔지만 진정으로 진지하게 개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관리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면서 전화받으면 남녀 가리지 않고 10의 8명은 빠지지 않고 하는 말 "어디신가요?"

병신들 알아서 뭐하냐? 용건이 있어 전화하는데 무슨 소속? 그걸 그 10명의 8에게 솔직히 얘기해주면 돌아오는건 싸늘한 반응뿐이니 누가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거나 이 바보들아~ 이제부터라도 절대 밝히지 않는다. _ _

주) 여기서 싸늘한 반응이란 겉치레(예의상 보이는 형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건의나 민원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제목: 일잘하는 정부란...

일잘하는 정부, 좋은 얘기다. 허나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려나간다면 정부는 언제까지나 고비용의 구조를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복지에 관련한 일이든 인허가에 관련된 일이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업무처리를 전산화하고 각종 소요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진정 '일잘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제목: 누리꾼 용어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야후 뉴스에 가보니 온갖 컨텐츠들에 "누리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누리꾼 용어 사용의 거부감을 서술했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다니 정말로 한심하고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티즌" 말살어 정책의 일환인 "누리꾼" 용어를 포탈들이 지속적으로 써온것에 반대하여 제가 야후회원도 탈퇴하면서까지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는데 아직까지 그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포탈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야후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내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한다는것 자체가 국내 정보통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음모가 깔려있는건 아닌지 심히 불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누리꾼"이란 용어는 거북하오니 "네티즌"이란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럼...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추진안 국무회의 통과

다시한번 말하지만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여 그 위원장과 위원(5명)으로 방송과 통신업계를 주물러 보

올릴 문서2.txt

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차기정부에 임명을 맡기겠다고 했지만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는 전혀 무관한 발언이다. 법이야 때에 따라 개정하면 그만이고 중요한건 국민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인데 지금의 방송도 어용이란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통신업계까지 제어하려 든다면 여론을 입맛에 맞게 재단하겠다는 속내 아니겠는가? 국회 통과가 남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기분이 드는게, 이런 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는게 무지하게 장이 오지 않는 밤이다. 국회마저 한통속이 되면 이런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속보이는 짓이 되고 말 것이다. 어쨌든 누군가는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제목: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청구 문제있다.

주민들이 아파트관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이, 관리비와 관리비외수입 계정에서 지난해동안 발생한 엘리베이터 보수비총액 지출이 257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가 27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지급된 비용이니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놈의 거성엘리베이터와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매달 적지않은 유지비 고박 나가고 세부보수내역 보면 15%가 전체 수리내역에 급한 비용까지 더해져 수리비는 수리비(1년동안 2570만원 부품비와 노임비)대로 다 챙겨가고 승강기유지비(매달 270만원 가량)는 유지비대로 받아가니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세부 수리 부품을 보면 잘 고장나지 않는 PCB기판(회로기판)도 꽤 보이고 308동 지하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왜 자꾸 고장이 잦은지 거기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많았을 것인데 제대로 운행도 못하고... 거기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상주한다는 직원은 어디갔는지 안보이고 전화해도 늦장을 부리며 몇 번을 전화해야 고쳐주니 그럴것 같으면 아예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생겼을때 업체에 전화해서 오라고 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지은지 5년도 안된 새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고장이 잦은것도 이해가 안되고 엘리베이터 제어판 열쇠를 관리사무소와 거성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있으니 그들의 수리청구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 엘리베이터 안전검사할 때나 보수직원들이 출입할때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들 제 3자가 동행하여 외부인사가 엘리베이터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새벽이나 아침같은 때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관련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엘리베이터를 출입하여 손을 대니 멀쩡한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동작할리 없습니다.(물론 안전검사만 할 순수한 의도였다면 이런 얘기 꺼내지를 않았겠죠) 뭐든 가만히 잘 동작하던 것도 건드릴수록 고장이 나기 쉬운것이 기계와 전기제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소에 가보니 이번년도 들어 수리비 청구된 것이 또 칠팔백이 넘었다고 조롱조로 얘기하니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박스와 상응하는 무게의 균형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전자제어장치와 롤러기계로 작동하는 내구재입니다. 정기적으로 안전을 위한 셋팅과 조정작업만 잘해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내구재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벌써부터 수백만원이 넘는 부품들이 교체되고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수리를 받았다는 것은 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며 그것도 관리비외수입에서 야금야금 주민들 돈을 거금 1500만원이나 넘게 한꺼번에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엘리베이터보수비 청구에 대한 대비책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영성한 엘리베이터 관리구조 속에 계속 주민들이 방치될 이유가 없으며 한두번 하는것도 아니고 1년에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반드시 짚고넘어가야할 사안입니다. 관리소 직원이 말한대로 제가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민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아파트 관리비외수입은 어린이집임대료, 관리비, 각종 광고수익, 테니스장사용료, 재활용수익금, 현금지급기임대료, 통신장비임대료 등이 모인 우리 공동의 수입입니다. 이런 소중한 돈을 소방설비다 엘리베이터수리다 안보이는 고장으로 인해 수천만을 소중한 데에 쓰지 못하고 그냥 날리고 있습니다.(물론 제대로 관리해서 올바르게 쓰여졌다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입주자대표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5년이 다 되도록 배란다나 외벽 유리창청소를 언제 돈들여 대대적으로 청소한적 있는지요. 이런 돈으로 더러워진 유리창 청소하면 오죽이나 좋을것을 쓸데없는 데에다 돈을 낭비하고 제대로 청구되고 있는지도조차 모르는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추신>

각종 수선유지비는 현재 한꺼번에 부과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나 기타항목에서 감가상각(가격을 깎아 매달 나누어 갈아가는)하는 형식으로 부과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관리비가 적게 나온다고 반심하지 말고 내가 찾아먹어야 할 돈들이 새지는 않는지 항시 귀를 기울이고 관리비내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내용과 각종 물품대장과 계약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목: 고쳐지지 않는 몇가지 사항과 요청사항...

이번에 우리아파트가 업체와 새로 계약하면서 청소비가 오르고 위탁관리수수료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경비비가 얼마전에 잠깐 오르고 부가세가 다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말로는 청소비 청구된 것이 계약서와 틀리게 더 청구됐다는 말까지 들었는데요...

왜 동대표들은 이런 내용들에 관한 회의를 비밀리에 열고 자기들끼리 회의날짜도 맘대로 변경해 버리고 주민들에게 알리기를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세간에는 관리규약에 대표회의 내용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내용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큰 힘을 얻고 있는 마당에 현재 이사로 계시는 3기 이정석 전회장님은 왜 그토록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분의 지금까지 동대표 활동을 지켜보고 이번에 관리규약 검토의견에 말해봤자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는 판단에 아예 그 애근 이곳에 꺼내지도 않았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는데 그분도 역시 말의 선후가 틀리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와 동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대표회의 일정 철저히 공개해 주시고요 회의록 꼼꼼하게 작성해 주세요. 제가 언제 동대표회의 참석 못하게 되면 회의록 보러 관리소에 찾아가겠습니다. 다 관리규약에 있는 내용이라는거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청소비가 작년부터 조금씩 올랐는데, 이전부터 계단 청소가 할때만 깨끗하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검은때가 조금씩 생기는데 이것 확실하게 말아서 청소해 주세요. 저도 계단청소에 어쩔 화학제를 쓰는지는 몰라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하세요.

또 한가지 우리아파트관리소 수입지출계좌관리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선충당금과 관리비외수입, 관리비선수금 및 관리비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에 관해 별도 계좌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 관리비외수입 상에 표시된 이자수입은 지극히 적은 금액이 표시돼왔던 걸로 아는데요 앞서 말한 항목의 모든 정기적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계좌를 만들어 관리비내역서상에 그 금액을 정리해 표시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5년 가까이 관리비를 관리하면서 이자수입도 상당히 많았을 걸로 짐작되는데 그 금액을 관리비계좌에 놔두지 말고 별도 계좌에 그때그때 모아서 입금해 그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달간 지내오면서 관리비내역서를 우편함에서 가져온 기억이 없습니다. 몇달간 제가 직접 관리소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관리소가 관리비내역서 전달에 소극적이라는 것인데 매달 12만원 쓰며 인쇄해가지고 왜 전달하지 않고 버리는 겁니까?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성실하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구 저것도 아니구 한마디로 무슨 전략입니까? 주민들은 아예 관리비에 대해선 몰라도 되고 동대표와 관리소에게만 말기라는 것입니까? 참 ^^ 고양이애 생선을 말기라는 격이죠. _ _

동대표들에게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며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비외수입의 잔고가 조금 있으니까, 그돈으로 자꾸 입주주민 생활과 무관한데다 돈 쓸 궁리하지말고 제가 전에 말한 환풍기구조결함 손보는데나 유리청소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곳에 좀 돈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관리소직원이 와서 환풍구를 열어보더니 그냥 나사조이고 그냥 가는데 그럴것 같으면 왜 집까지 찾아왔는지.. 왔다는 데에 의의를 두려고 하는 모양 같아서 보기에 안좋았습니다.

그럼...

제목: 택시비, 버스비 올려도 너무 올린다.

며칠전 오랜만에 옛적 친구가 집에 찾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그날은 우리동네 아파트 동대표회의도 있는 날이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기회도 주지 않는 동대표들 때문에 1차로 기분을 망쳤다. 방청객으로 유일하게 찾아온 주민이 심각한 현안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먼저 발언하고 가겠다는 부탁도 들어주지 않는 동대표들이 무슨 동대표 자격이 있는가 속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대로 따지기로 하고 그 자릴 떴다.

그 친구가 부탁한 컴퓨터 스캔작업을 마치고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시장쪽에 있는 햄버거 집에서 맛있는 햄버거를 먹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옛날 같이 다녔던 고등학교도 갔다오고 학교다녔던 애기, 컴퓨터에 관련한 얘기 등 우리는 그 친구 집으로 향해 장장 5.5Km를 다시 걸어면서 내내 시간가는 줄 몰랐다.

철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그 친구 집은 철학과답게 한마디로 다양한 학문세계의 보고였다. 거기서 그 친구의 노트북도 구경하고 아까 찍은 카메라폰 사진도 전송하여 편집해 보며 한마디로 동대표들에게서 망친 기분이 순식간에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여러가지 학문적 토론도 하고 나의 철학세계도 얘기해 주며 몇시간을 보내고 나니 벌써 새벽 2시 반...

그 친구와의 흡족한 학문적 호기심을 교환한 나로서는 이 우주를 어렵פות이나 다 깨달았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택시를 타기위해 다시 현실에 부딪힌 나는 또다시 치열하고 교활한 인간세계에 넋 저리를 떤다.

아까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가는데 1900원부터 시작된 미터기가 5000원을 가리킨 것이다. 예전에 한번 택시를 탔을때 3000원 남짓이었던 요금이 벌써 2000원이나 더 올랐다. 기본요금과 할증, 거리별 요금이 많이 오른 것이다. 차라리 요금을 물렸더라면 더 속편했을 것을 난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와서 2차로 기분을 망치고 말았다.

서울시는 해도해도 너무한다. 심야라고 시민들 발을 볼모로 택시요금을 터무니없이 업자들에게 올려주는 것도 모자라 버스같은 경우는 노선을 개편했다며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23% 가까이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1년도 안돼 몇번이나 1년 물가상승률의 네다섯배나 되는 요금을 올린다. 이게 시민을 위한 기관인지 버스업자들을 위한 기관인지 무척 헷갈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요금을 적정하게 매겨 버스이용을 활성화시킬 생각은 않고 일방적인 횡포를 가하며 버스수송분담률이 떨어졌다고 요란을 떠난다. --

그림을 보면 알지만 우리동네(신림동) 버스들을 살펴봤을때 노선이 그대로인(존치) 버스의 수가 전체의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단축이나 연장운행하는 버스들이 대부분이다. 이러면서 또 똑같은 시꺼먼 매연 폭풍 내뿜으면서 필자같은 인도 애용자들을 괴롭히고 서울시내 상공을 검은 연기로 온통 뒤덮을 것이 분명하니 이정도면 800원이 정말로 아까워진다.

필자는 앞으로 건강도 생각하고 버스비, 택시비도 아낄겸 내 가장 좋은 교통수단인 도보를 적극 활용할까 생각중이다. 뭐 이것은 예전부터 죽 실천해 온 것이지만 서울시의 계속적인 만행에 나부타라도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다. 하루에 3시간 가까이를 운동에 할애하는 필자로서는 이것은 매우 손쉬운 다짐이다. ^^

제목: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통부의 신규가입정지 조치...

난 이전부터 이 뉴스를 듣고 처음에 무지 황당했다. 이동통신회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월사용료를 받아 내기위한 가입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정통부가 중간에서 뭐라하며 신규가입정지 조치를 내리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함을 넘어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단말기값이 워낙 비싸니까 통신회사 입장에서 보조금을 써서라도 가입자를 유치하면 매달 들어오는 통신료 수입이 짝잘하므로 1년 2년 계속되면 수지타산이 충분히 되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시행하는 전략을 정통부가 나서서 규제한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지도 않은 행동이다.

오히려 소비자 측면에선 그런 정책을 장려 단말기값을 저렴하게 공급해야할 의무에 있는 정통부가 오히려 통신회사의 수익전략을 뭐라하며 나선다는 건 관료들의 대표적인 걸고 넘어가는 행정스타일의 전형이다. 괜히 통신회사의 정책을 규제해 뭔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고약한 심보인 것이다.

이동통신회사는 초기에 투자비용이 들어도 지금과 같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장기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선 원가도 별로 들지 않는 통신 사업에선 대박의 경기인 셈이다. 핸드폰 사업의 특징이 초기 설비만 잘 투자하면 유지비용이 별로 안들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통신료 수입은 단말기 보조금을 쓰고도 남음이 있는 투자매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가 매번 이런 보조금 지급에 대해 따지를 걸고 나오는 것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계속 이같은 행동을 하다간 그 속성을 다 아는 국민들한테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제목: 쓰레기 단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단무지로 만두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요새 화제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단무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단무지는 남은 단무지를 모아서 위생처리한 다음 만들었기 때문에 먹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주변의 불량식품에서 흔히 만날수 있는 비식용 재료로 들어간 음식이다.

예를 들어 튀김만 하더라도 식물성 기름을 쓰는것이 아닌 공업용 기름을 쓰게 되면 사람한테는 매우 치명적이다. 예전에 동네 한 튀김집에서 필자도 야식으로 튀김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먹고나서 아주 혼이 났던 기억이 있다. 어떤 집은 여러번 튀긴 기름을 계속 쓰기도 하는데 그런 음식의 단속이 앞서 말한 만두의 경우보다 더 급하다. 이런 기름들은 체내에서 제대로 분해가 안되고 홀몬 대사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체내에 쌓인 나쁜 물질을 걸러준다는 채소역시 농약에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다. 농약에 들어있는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체내에 쌓인다고 하는데 강력한 살충성분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인간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수산물도 바다의 오염으로 안심할 수준이 못된다. 원양어선에서 잡아온 것들은

올릴 문서2.txt

안심하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낚시터에서 잡은 물고기는 아예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게 좋다. 현대의 가공할 산업폐수로 인해 점점 강과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1세기엔 더더욱 환경의 클린화가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요사이 여름철에 일어나기 쉬운 식중독균에 대한 관리다. TV에서도 가끔 학교 같은데서 집단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위생관리의 소홀이 앞서 말한 만두사건보다 더더욱 큰 문제다. 식중독 군 중에는 소시지나 기타 육류에서 빨리 번식하는 치명적인 미생물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한다.

뉴스에서처럼 학교 식당에서 먹는 일반 음식을 먹고 학생들이 식중독을 일으킬 정도면 얼마나 식당위생과 재료유통의 관리를 엉망으로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것은 업자들이 유통기한을 늘리고 재고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식품에 검증되지 않은 방부제를 마구 집어넣는다는 사실이다. 소시지를 비롯해 통조림, 빵, 심지어는 압축포장에 이르기까지 방부제가 안들어가는 음식이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앞서말한 쓰레기단무지 같은 경우보다 훨씬 중요하다. 방송의 요란함에 이런 중요한 위생상 맹점들이 가려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제목: 전자파 장시간 노출 위험하다...

필자가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전자파 문제를 계속적으로 걱정하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전자파가 인체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전자파에는 자기장과 연관이 있는 자계파와 전기장과 연관이 있는 전기파로 나눌수 있는데 자기장은 말 그대로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물질로는 좀처럼 차단시키기도 어렵고 인체에 치명적이지도 않다. 허나 전기파는 안구건조증이나 만성피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물리적으로 일정한 너비의 진폭을 가지고 있어서 금속성의 적당한 차폐기를 가리워주면(예:전자렌지) 어느정도 완벽히 차단할 수가 있다.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파가 방출돼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허나 전기파의 더 큰 문제는 장시간 노출되었을때 뇌질환의 일종인 간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신빙성 있는 임상보고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뉴스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녁시간대 일본 도쿄방송이 송출한 포켓몬스터 프로를 장시간 시청한 어린이들이 각 가정에서 간질증세를 집단적으로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

TV는 화면크기에 따라 일정거리를 유지하면 전자파의 강도가 상단부분 상쇄되는데 어떤 어린이들이 발작증세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수급이 가는 이야기다. 일반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1미터만 떨어져도 전자파가 상당부분 상쇄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도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다리나 몸의 한구석이 이상하게 예민해지는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간질의 초기증상이 아니라고 그 누가 속단할 수 있겠는가? 간질의 실제 임상실험에서도 정상 상태일 때의 뇌파와 간질 상태의 뇌파가 확연히 틀리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수가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독자들은 그런 적이 없는가?

전자파 차단 제품에 인증하는 규격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TCO 규격이 있는데 필자의 모니터도 그 규격을 만족하고 있다. 그 일이 몇번 있은 이후로 안심이 안돼 전면에 차폐기를 하나더 씌워놨는데 이전보다 안정된 컴퓨팅 생활에 지금은 매우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본인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항상 켜놓는데다 장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항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덩치가 큰 CRT 모니터보다는 액정 LCD가 전자파가 훨씬 덜 나온다. 차폐기를 덮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화질이 보장되므로 다음 부터는 필자도 LCD 모니터를 구입할까 생각중이다. 뭐 전기소모량도 적고 공간활용도 넉넉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것 같다. 옛날엔 LCD가 가격이 매우 비쌌지만 요샌 많이 다운이 됐다. 독자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전자파의 위험, 정말 지나치기 쉬우면서도 꿈꿈이 대처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제목: 쓸모없는 경찰과 법원은 개선돼야 한다...

필자는 인터넷으로 아버지가 취미로 하시는 철학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을 돕고 있다. 취미로 하는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이따금 상당만 받고 후에 입금을 하지 않는 작자들이 있어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일을 내가 하는데 전화를 몇번해도 이내 끊어버리던지 받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 국내같은 경우는 신문을 알아내 추궁할 수도 있겠지만 먼 해외교포한테 당하는 경우는 미국이라 갈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때가 두어번 정도 있었다.

그래서 경찰과 법원의 도움을 얻고자 해당관서에 전화를 했는데 맨처음 경찰서로 전화를 했을때 우리는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에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하였다. 법원에 전화를 하자 직원 왈, 적은 금액은 송달료도 안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이다. 미국 교포같은 경우는 30달러 받고자 송달료 몇번 교환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단다.

난 그 같은 경우를 당하고서 우리나라 경찰과 법원이 참으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이용할 일이 없어 거의 이용을 안하는 관서가 필요에 의해 도움을 청했더니 송달료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에 정말 허탈하고 정내미가 떨어지더라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는 경찰서와 법원이 과연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수한 공무원들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돈 아깝고 억울한 일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블로그를 이용하는 한 이용자가 자신을 가장해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못된 네티즌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서에선 해당법규가 없어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게 우리 경찰과 법원의 현주소다. 참 우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제목: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 문제있다 이윤찬 님 생각 / 2004.01.11

보통 기업들이 만들어서 수정해나가는 약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너무나 많다. 다 불공정 약관들인데 이것들의 사례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번에 인터넷대란의 경우도 1인당 300원 수준의 보상도 못하겠다고 역소송을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과연 300원의 피해밖에 되지 못할까?

제목: 정부의 부동산 세율 인상에 즈음하여...

면적을 시가로 변경하면 세수가 폭증하는데 그럼 새로운 정책은 강남을 제외한 기존 주택거주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없이 정부의 세수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

지금까지 세금 정책은 강남강북간 조세정책에 있어서의 불균형이었다. 즉 강남 거주자들이 최고시가의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부동산 투자)하면서도 같은 면적의 비강남거주자들보다 세금은 턱없이 적게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의지가 있고 조세형포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강남거주자들의 폭증하는 세부담을 강남 이외의 거주자들의 혜택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시가가 낮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말해 면적에서 시가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면서 생기는 엄청난 효용을 세금의 효율조정을 통해 전국민에게 고루 분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조세형평에도 합치된 것이어서 나무랄데 없는 조세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요사이 부동산 급등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강남 부동산 소유자들의 가격담합인데 이들이 시가기준의 높은 세금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못된 행동을 할 것인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만약 이번에 새로운 세금정책으로 강남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서도 기존 비강남 거주자들의 세금은 그것대로 세금을 더 걷으려 한다면 정부가 세금만 걷으려 하고 달라진 정책으로 얻는 효용은 분배하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제안이 정책 담당자들에게 꼭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며 의견을 마친다.

제목: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해 선발하는 패러다임이 문제다.

좋은 대학을 가야 사회 나와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대학을 가기위해선 시험을 잘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학교에선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시험을 잘보게 하기 위한 상업적 학원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고 결국 학부모들은 자식들 시험 잘보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학원에 보내게 되고....

사람들은 이미 망국적인 사교육비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정부나 기업, 행정관청에서 부터 인재를 선발하는데 있어 이런 망국적인 선발방법을 개선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사람의 능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현되기 마련이어서 시험이란 단순한 도구로 측정할 만큼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전인교육 전인교육 매일 떠들면 뭐하는가 그런교육이 취직하는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학교와 학원에선 쓸모없는 시험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치고 직업교육은 결국 이렇게 실업문제가 터져 온국민이 방황과 좌절감에 빠진 지금에서야 다시금 새로 시작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

그러나 여태까지도 사회나 학교에서는 정신을 못차려서 선생이나 교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두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런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서 소중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짓밟고 사장시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하다. 대학입학시험에서부터 그런 선발방식을 강요하고 결국 그들이 진출해야 할 사회, 직장에서도 그런 방식을 요구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을 우리모두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도덕적 가치와 학생의 소질, 취미, 장점과 단점을 보듬어 그야말로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얼마전 지방의 어느 고등학생이 사회를 비판해 투신자살한 사건은 단순한 남의 일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젊은 학생 모두가 고민하는 비애와 고충들이다. 내 자식은 그럴 일 없겠지 하며 자위하기 보다 그런 불합리한 패러다임들을 내 머리에서 개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사고육비 문제는 언제든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제목: 누군가는 소유하게될 부동산, 최선의 보유세 정책은...

내가 누차 보유세에 있어 강조한 점이 실수요자를 위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종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왜냐하면 1가구 다주택자들은 소유와 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세금을 종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런 관점에서 보유세 인상이 시도돼야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을 급매물로 시장에 유도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매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주위를 보면 부동산 업자를 비롯한 일부 악덕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싹쓸이 매집한 것을 볼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해서 시장의 매물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집 여러채를 소유해도 세금이 적으니 그들은 계속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게 되고 그렇게 집값이 오를 기회만 엿보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되고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담합을 조장하기도 해 부동산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상실시키기도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얘기가 되어 버렸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정부가 강력한 판단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다. 괜히 실수요자와 실거주자들, 국민모두에게 '세수확대'라는 오해를 사지 말고 아까 말한 다주택자들의 강력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 부과 체계도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채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주지하시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야 하는데 지금은 꺼꾸로 이지 않는가? 또 현재 양도세 취득세 부과 규모도 상당히 크고 일명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도 반기별로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실수요자와 실거주자들의 세부담은 경감하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보유세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정책 입안자들께서도 본인의 뜻을 잘 이해했으리란 생각이 들며 이 정도 선에서 토론의 의견을 마칠까 한다.

제목: 정동영, 김근태, 정동채 의원 장관 겸직 문제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법이 개정된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간다고 한다. 어떻게 요사이같은 권력집중을 경계시하는 분권화 풍토에서 이런 법을 활용,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 세명을 중요한 부처 장관직에 겸직하도록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권력을 남용하여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인사조치다.

그런 법이 예전에 제정된 것도 이해할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여 독차지할수 있는 제도가 30년이 넘게 유지되면서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을 정도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도 그렇고 해당부처에서도 그렇고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하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양다리 걸치기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월급도 양쪽에서 받을 것이 분명하니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

차리리 그 자릴 차관급 이하의 경험있는 공무원으로 대치했으면 좋았을 것을..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조치도 이전의 정부와 크게 다를바 없어 기분이 좀 씁쓸하다. 매번 말로만 개혁을 떠들지 세부를 들여다보면 가장 기본적인 행태들에서 구태를 답습하고 있으니 여간 답답한 현실이 아닐수 없다. 우리 이제 걷은 걸은 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요지부동하는 태도를 버리자. _ _

검찰도 개혁한다더니 여전히 똑같지 않은가?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법무부는 다시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고... 매년 말로만 개혁한다고 하지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현 법과 제도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필자의 말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

제목: 엠파스 블로그 건의사항...

오늘 하루종일 카테고리 목록의 번호가 클릭이 안되면서 다음번호를 클릭하면 추천 블로그가 나와버리는데 그거 장난으로 그러신 건가요? 새로 개편되면서 그렇게 바뀐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셨으면 넘 시간이 오래 가는것 같네요. 저도 시간이 남아서 블로그 운영하는것 아닙니다. 그리고 글 하나하나 쓰는 데도 정성을 들이고 있구요. 좀 장난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수정해 주십시오.

노력하고 계신건 알지만 이런 쓸데없는 장난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블로그 개발자님한테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전 언제라도 여기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Daum을 떠난 칼럼니스트인데요 엠파스마저도 블로거들을 배신한다면 영영 이 분야를 뜨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칼럼공간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약속(?) 드리죠.

엠파스가 오늘 개편하면서 장난을 하는것 같아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전 지금의 엠파스 체계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글을 자주 쓰지 않으면 영영 컴퓨터 속으로 블로그 공간이 묻혀 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실수 있죠? 전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음도 그렇고 엠파스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꾸려온 칼럼과 블로그인데 그러실 수 있는지... 전 Daum을 떠나면서 엠파스도 언젠가는 그럴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진정 네티즌과 나라를 위한 블로그를 만드실 계획이라면 상업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은 약간 수정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드리서 죄송합니다.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아서 이렇게 주저리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_ _ _

맞어, 목록번호 클릭 안되는것 수정하시기 전까진 새글 쓰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고집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형 쇼핑몰 상품평 문제있다.

예전에 필자는 Daum에서 겨울 방한용 귀마개를 구입한 적이 있다. 실제로 물건을 보지 않아서 단지 웹상에 나온 사진과 스펙을 보고 구입을 하였지만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가격에 비해 좀 조잡하고 귀에 잘 맞지가 않았다. 하지만 구입한걸 물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솔직담백한 상품평이라도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성들여 상품평을 썼더니 아니웬걸 상품평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Daum쇼핑'에 전화해본즉 담당자 이야기할, 자기네들이 올라온 상품평들을 살펴보고 선정해서 적당한걸 게재한다는 것이다. 난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해서 그럼 좋은 얘기만 게재하실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필자와 같이 솔직담백하게 상품평을 작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도우려 하여도 쇼핑몰 담당자들이 중간에서 글을 보고 가로채 버리니 이게 무슨 쇼핑몰 상품평인가? 이건 쇼핑몰 상품평이 아니라 황포에 가까운 것이다.

그 일로 꽤심한 생각이 들고 은근히 열받고 화가나서 Daum 같으면 그런 부당한 사이트 운영원칙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우리네 포털사이트의 쇼핑몰 운영 행태가 대충 이렇다.

컴퓨터부품 전문 가격비교사이트인 다나와 같은 경우는 각 부품에 대한 상품평과 리뷰를 달 수 있게 만들어 놔서 혼란스럽지만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매장판매와 온라인판매까지 구분해 놓아 상인들의 못된 황포를 막는데 노력하는 모습에서 정말 이곳은 믿을 수 있는 사이트구나 할 정도로 자주 이용을 하게끔 사람을 만드는데 전자와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데도 모자라 이상하게 답답한 쇼핑을 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연발해 낸다.

최근에 와서는 이곳 'empas 쇼핑'에서도 온라인 구매를 두어번 한적이 있는데 이전에 구입한 의자는 문제가 없는 물건이어서 상품평을 쓸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구입한 전기주전자는 문제는 없었지만 약간의 위생상 결함이 보여서 제대로 된 상품평을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여기서도 역시 상품평을 게재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답답함이 연신 가슴을 때렸다.

결국 컴퓨터에 도통한 나도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헤매다가 문의글만 남겨놓고 포기하고 말았다.

대형 쇼핑몰들이 그런 식으로 소비자 상품평에 대한 서비스에 인색해 하는것은 당장 먹기 좋은 상품으로 포장해 얼마간 물건을 반짝 팔 수 있을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비싼 물건을 믿고 거래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싶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속보이는 정책으로 쇼핑몰을 차려놓고 소비자를 울리면 누가 그 쇼핑몰을 이용하겠는가 말이다.

올릴 문서2.txt

물건 한번 팔고 문 닫을 거라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해도 좋다. 하지만 한번 팔고 두번 팔고 앞으로 계속 장사할 거라고 한다면 그런식으로 하면 절대 안된다. 나라도 절대 그런 쇼핑몰에서 두번 다시 안산다. 차라리 발품해서 직접 보면서 사고 말지... 온라인에서 가격을 알아보고 오프라인으로 매장에 가서 구매하는 방법과 같이 말이다. 그럼 위험부담도 없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참으로 답답한 하루다. _ _

p.s 가격은 싼데 약간의 부족함이 보이네요...

저도 미처 거기까진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받아보니 용기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서 가열시 환경호르몬이 초기에 묻어나올 염려가 있는게 약간 흠입니다. 나머지 가격과 성능 디자인, 부속등은 만족할만 하지만 중요한 위생을 생각하지 않고 나온 제품인것 같아요.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위생적인 부분은 제품 출시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덕목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좀 규제할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이걸 뭐 플라스틱 냄새가 진동을 하니...

제목: 북한 핵무기 보유선언, 정부 책임져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걸 전격 선언했다. 그동안 반신반의하면서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을 바랬지만 북한이 보기좋게 남한을 배신때리고 전격 핵무기개발(핵개발이 아니라 핵무기개발이다-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을 선언했다. 6자 회담은 매일 하면 뭐하나? 핵사찰이 전제되지 않는 회담은 한갓 무의미한 자기 성도장이 될 수 밖에 없고 한미일중러 당국자들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면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사찰을 받을 수 있는 당근을 적극 제시했을텐데 회담만 계속 공전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런 어이없는 뉴스가 터지고 나니 필자로서도 무척 당혹스럽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북한으로부터 핵사찰을 받아내지 못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외교부의 무능한 대처가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켰다. 핵사찰을 받아내지 못할 거라면 미국과 공조하여 사전에 강제적인 억제력도 고려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채 북한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우리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그게 평화적 대치상대든 긴장상대든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에 있어선 큰 위협적 존재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화를 갈망하는 열의를 생각했을때 당국자들이 반드시 저지했어야 할 마지막 마지노선이였다.

이제와서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고 떠벌릴것 같으면 아예 말을 꺼내지도 말라...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는가? 필자가 누차 강조했지만 전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의 감축이 앞으로의 중요한 이슈인데 정부가 이제와서 그런 말을 꺼낼것 같으면 아예 직위를 뽕배겨치고 시골로 낙향을 하는게 좋을 것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미일중러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참으로 답답하다. 매일 6자회담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냐? _ _

제목: 참여정부에서 200자 제한이干嘛입니까?

안녕하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엠파스 블로그에서 개인적인 칼럼을 쓰고 있는 한 평범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전부터 참여정부의 국정에 관심이 많아서 노무현대통령님이 지시하여 창설하신 국정브리핑에 자주 들러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달아왔는데 여기가 언제부터인가 개편이 되면서 기사에다 댓글을 다는 의견란에 200자 제한을 두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행위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이것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과 해명을 듣고 싶어 이렇게 자판을 잡게 되었습니다.

국정브리핑은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지로서 국가가 발령하는 각종 시행정책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가장 빨리 접할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 의견을 다는 행위는 곧바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200자 제한이라는 정책을 국정브리핑이 계속 버리지 않고 계속적인 개인적 건의에도 나몰라라 하는 행위에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개월 전부터 국정브리핑 사무관과 통화하면서 검토의견을 계속 받아냈지만 아무 성과가 없어서 오늘 다시 전화하여 200자 의견에 대한 부당함과 국민의견청취의 소극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 다만 그쪽에서 말도 안되는 변명을 일삼으면서 서버가 무리가 가느니 방침이 그렇다느니 하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힘들게 의견을 달아 참여하겠다는데 글자수 제한을 두는 국정브리핑이 잘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누가 시켰는지 몰라도 어쩔수 없다고 하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에 대통령님이 진정으로 참여정부의 기치아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노대통령님이 창설하신 국정브리핑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전자정부와 참여정부의 이념과도 일치하구요.

전 오늘 그 사무관과 통화하면서 꼭 막혀있는 벽과 얘기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아듣게 정당성과 명분을 호소하여도 먹혀들지 않는 고집과 변명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걸 눈치를 챘습니다. 다른 포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빙빙 말을 돌리길래 언론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하니가 그렇게는 대답을 못하고 오늘 기분만 망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정책기사에다 200자 제한을 가하여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 이제는 의지할 데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마저도 저의 의견을 묵살하신다면 대통령님이 진정으로 참여정부에 뜻이 없고 국민의 의견을 인터넷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려 한다고 단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그러한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큰 실망과 함께 참여정부와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건의에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칼럼주소를 알려드리죠. <http://blog.empas.com/blrun2>

200자

부동산 취득할때 과세표준 7000 적고 500만원이 세금이라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실거거가로 매겨 세금을 엄청 매긴다. 그리고 보유세도 오르고 1주택 소유자들은 완전 세금징수 무대의 봉이다. 어떻게 이런 세율이 적용되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리고 공공주택 원가공개는 다 어디 갔나 이런 부분별한 세금정책은 정부의 뻔뻔한 부동산 정책의 일면을 잘 말해주고 있다. 세금만 걷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200자 제한을 가해 국민들 입을 틀어막는 국정브리핑 열간이들은 이 나라의 관리가 맞는가? 참여정부는 무슨 개나발 같은 참여정부...

내가 세금을 내기 위해선 우리 형이 준 돈을 아껴서 관리비 내고 세금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몸이 별로 안좋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주변의 직업학교를 수료해 기술을 단련했지만 그것 가지곤 안된다. 워낙 만성화된 병이 있어 집에서 그냥 컴퓨터 공부하고 웹사이트 만들어 비영리사이트 만드는데 기여하고 만족해야 한다. 이러는줄 모르고 공돌이들이 이런 정책을 편다면 난 정말 이 정부에 대해 혐오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공돌이가 있다면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 국민들은 한계상황에 직면에 있다. 물론 거시적으로는 부유해 보일지 몰라도 정신과 마음은 많이 황폐화되어 있다는점 명심하기 바란다.

제목: [펌]부동산가격 안정인가? 세수확보인가?

오늘날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주장하면서 내어놓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제목아래 국민의 재산을 국고로 거두어 들이는 작업만 계속 하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이렇게 생각도 없는 듯한 정책을 과연 어떤 사람이 내어놓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보유세 상승을 통한 부동산 소유 억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부치면 결국 모든 국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것이 아니라 집없이 살아가는 국민의 숫자가 늘어갈 것이고, 양도세를 많이 올려서 부동산 이익부분을 자꾸 거두어 가려고 하면 건설경기는 얼음이 되고 말것이다

전국의 땅값을 상향조정하면 결국 세금은 많이 거둘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다.-집을 보유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집값이 내렸을때는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 정직한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 국민의 아픔을 자신들이 느끼면서 정책을 발표하면 좋겠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투기억제에있는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실천하면 좋겠다.

대안을 제시하면 이렇다. 부동산 공급가액을 낮출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투기가 억제될것 아닌가 (*토지개발공사는 땅장사 그만하고, *.주택공사는 뺑뺑이 분양가 철수하고,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정직하게 공개하는 법을 입안하고, *.몇단계씩 내려가는 하도급 건설형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인, 허가 단계에서 관행처럼 시행되는 돈봉투 주고받기 근절하고,) 해야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러한 것에 관하여는 한마디 말도없고, 집 가진 국민들을 마녀사냥하고 계시는 정부 관계자님은 조금만 더 정직하게 일 하면 좋겠다. 결국 집값은 나라에서 올려놓고(뺑뺑이 분양가 묵인), 오른만큼 거두어 가겠다는 정책이 우습기까지 하다.

물론 정책개발에 있어서 소 시민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왜 없겠냐마는 소 시민의 눈에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 이것은 분명한 문제점인것 같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 집을 사고, 파는일은 쉽게 해주고, 보유세도 내려주고, 다만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정직한 가격'을 정직하게 유지시켜, 거품으로 올라있는 아파트 가격이 저절로 내려올수 있는 정책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목: 관리비의 불액홀 "엘리베이터"

동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는 코빼기도 안보이네요. — — 먼저 정전 문제는 저도 심각하다 싶어 한전에 그당시 문의해 보니 변압기 용량의 문제인것 같기도 하구 제대로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 정전 당시 제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문제해결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거성"이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매달 2백80여만원씩 그쪽에다 지불하면서 A/S 담당을 해왔는데 정작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때는 별도의 부품비와 용역비를 수천만원씩 더 지불하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구요, 이제는 한술 더떠 매년 4천7백만원을 수리비로 정하여 고정비로 할당해 놓고 매달 나누어 갚아나가고 있으니 정말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 고정비로 엘리베이터 수선비를 할당해 놓으면 고장이 안나도 그쪽에선 가격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로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302동이나 지하엘리베이터처럼 잦은 고장이 빈발하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전 동대표회의 때 일부러 제가 참석을 해서 동대표님들께 한마디 드렸습니다만 일부의 뻔뻔한 동대표 둘이서 회의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관리규약 상에 회의에 참석한 주민에게도 당연한 발언권이 있는데 이런 불쾌한 예우에 기분도 나빴을 뿐 아니라 지하 깊숙한 곳에 회의실을 차려놓고 칸막이까지 하며 회의를 하는 동대표들이 무척이도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갔을때는 참석한 주민이 달랑 저 혼자더군요. 주민들은 회의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회의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완전히 밀실회의장이라서 이런 사태가 이해가 갈만도 하더군요. — —

엘리베이터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이트 우리 동대표들이, 관리사무소가 교체하는 엘리베이터 부품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어디있는 부품이 뭐가 고장났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들이 고장났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관리사무소와 거성간의 관리감독 관계와 열쇠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들의 출입과 감독문제도 그렇구요.

제가 엘리베이터 교체부품들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만 원 고장난 부품들이 많은지 이것저것 다 가져다 붙여 수리비를 청구해 놓았더군요. 각 부품들이 엘리베이터에 붙어서 동작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디에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이고 그건 얼마만 큼 자주 고장날수 있는지 등등.. 그리고 관리사무소와 거성과의 막후 관계도 잘 모르고 있고... 이런 사실들은 우리 아파트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 있어 사실상의 불액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모르면 완전히 거성이나 관리사무소에게 당하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요놈의 관리사무소나 거성엘리베이터가 수리비 청구하는거 보면 지극히 지능적입니다. 항목을 여러개 벌려놓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부품비를 벌려놓은다음, 합산해 거액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부품의 기능을 알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한다는 거요. 아무리 엘리베이터라고는 하지만 기계에서 고장나는 부품은 거의다가 한두가지일 경우가 다반사이거든요.

저는 컴퓨터에 대해 잘 알고 엘리베이터에 대해 잘 모르지만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원이 꼭대기 층에서 방화수로 계단을 청소할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관리사무소는 괜찮다고 우리가 그런것 모르겠냐고 호언장담을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자주 고장나고 매번 수백만원의 수리비를 동대표회장에게 청구하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물리적 장치와 전자적 장치가 결합된 것인데 물에는 전자장비들이 고장나기 쉽기 때문에 특히 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보드 보드 그러는데 보드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몇년이지나도 쉽게 고장나지 않는 부품입니다. 로우프 교체도 그 지름을 매년 검사해 재가며 정기적으로 교체한다고 했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로우프들은 몇겹의 로우프들이 맞물려 안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군가 범행을 하지 않는 이상 설사 한두개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결함이 전혀없는 우수한 안전성을 갖추었습니다.

매년 4천5백만원이란 돈을 관리사무소에 맡기고 청구하는대로 다 결재해 주기 이전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제대로 관리는 되었는지 추궁하는게 순서입니다. 또 부품비 항목이 어디 잘못돼 있는지는 없는지 부품비는 과다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동대표들이 있는 것이지 엘리베이터사용료 턱없이 올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과다청구했을때 액면 그대로 다 결재해 주라고 동대표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와 거성엘리베이터는 관리비 내는 주민들을 계속 농락하려 들지 말고 이젠 진정으로 주민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이젠...

제목: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충고

이제 주택은 부동산업자들이 하는 투기가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금 정책도 거기에 맞춰 따라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첫째,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물유도 정책이 정부에서부터 일관성이 없다. 처음엔 2주택자들에게 엄청 세금을 매긴다고 하더니만 얼마있다 번복하고 1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면제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질 않나 국민들로서는 무척이나 헛갈리지 않을 수 없다.

둘째, 1주택의 국민들은 세금 낼 형편이 못되는데 지금까지 거래세와 등록세로 대박을 잡았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른지 보유세 인상까지 들고 나왔다.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매물을 유도함이 옳은데 정책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셋째, 정부가 투기꾼들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웬지 모르겠지만 의지력이 약한지 자주 번복만 거듭하는 이상행동을 하고 있다. 공공주택의 분양가 공개도 그렇고 거기에 옥매달아 투기꾼들이 저리용자를 통해 집을 몇채씩 분양받아도 매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도시키지 못한다. 1억 8천에 분양받아 2억 8천에 팔면 1억이란 돈을 챙기게 되는데 그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챙길줄 알았지 서민들이 비싸게 주택을 구입한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세간에 분양권 전매금지나 금리인상 문제도 대두된 것이고 말이다.

이 세가지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도 집값안정을 이룰수 있고 국민 전체가 집을 가지면서도 적지않은 금액의 보유세 수입을 챙길수 있을 터인데, 정부가 너무 일관성이 없이 세수입에 눈이 멀어 욕심을 내는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상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공정한 부동산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집 많이 가져봤자 무덤에 그것 가져갈것 아니잖습니까? 또 모든 국민이 내집 한채로 부유해지면 재산세도 더 많이 걷힐 터이고...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지 과욕은 금물입니다. _ _ _

제목: 이런, 댓글이 또 안올라가네요.

제가 '누리꾼'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어느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왜 멀쩡한 '네티즌'을 놔두고 듣기 거북한 '누리꾼'을 자주 사용하냐고 하니까 하는말이 기자연합회에서 우리말인 '누리꾼'이란 용어를 사용하자고 했다네요. 한마디로 말살어 정책을 써서 '네티즌' 파워를 잠식시키고 기자들 입김을 강화시키는 전략이지요. 여기에 알려들면 안됩니다. _ _ _

그리고 각설하여 이곳 관리자이신 윤중현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댓글이 안올라가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서운합니다. 매일 시간없으시다고 하시면서 댓글문제는 왜 됐다 안됐다 말썽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과거 그 부분에 있어선 정말로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로 인해 그냥 날린 문장들이 수도없이 많았거든요. 수고하시는건 잘 알지만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는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헐~

그 사람이 누구던가요? 토론내내 몇마디 하지 못하고 점잖만 떨며 토론을 마친 그 후보 아닌가요? 아마도 어제 후보중에 제일 토론성적이 저조했던 제일야당후보라는 생각이 들던데...

제목: 주민소환제

결국은 한나라당이 국회를 점거하며 주민소환제법 통과를 저지했다는 말 아닌가? 변명으로 들리는군요. 그 법이 궁금하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5월2일자로 한번 검색해 보시요. 그게 줄속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란 사실을 알거요.

제목: 네티즌 저널리즘의 침체 이유

김대중씨를 완전히 매도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과 한가지, 노무현 정부들어와서 자신을 당선시킨 블로그와 칼럼니스트들의 활동무대가 어떤 연유로 인해 좁아졌다는것. 노무현이 기존 미디어 언론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인터넷미디어를 비롯해 방송들도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네티즌이 생산하는 저널리즘을 분쇄하는데 동참했다는것. 이것이 요사이 인터넷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다. 그 입지란 무엇이나? 인터넷미디어는 포탈사업이고 방송들은 기존 언론권력일 것이다.

또 한가지 그당시 블로그가 망가진 이유중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포탈사이트에서 일하는 개발업체들이 소스를 다른 포탈로 이동시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렬 블로거들의 블로그를 건드려 장난을 쳤다는 얘기죠. 개발업체 입장에서선 한두 포탈에서 인기있는 것 보다는 블로그 인기가, 많은 수의 포탈로 전이돼 서비스되는 것이 자신들 입장에서 훨씬 남는 장사인 거죠. 개발자들도 결코 공이공대로 믿을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각계 각층엔 절대로 믿을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성실히 일하는 개발자들도 많죠. 그런 집단도 많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조직도 많습니다. 상기한 가능성과 함께 이것이 제가 진단하는 네티즌 저널리즘의 침체이유입니다.

제목: 붉은 악마 축구 시즌 댓글

올릴 문서2.txt

난 어느때 부터인가 축구가 재미없어졌다. 왜냐하면 월드컵이다 뭐다 때가되면 방송에서 난리법석을 떨며 대한민국 연호를 외치는 것이 보기싫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sex다음의 최대관심사인 축구로 몰아 국가주의의 최면에 빠지게 하는 방송들과 당국이 싫다는 뜻이다. 물론 국가의 존속을 위해 이런 이벤트가 가끔씩 필요하기에 월드컵이 생겨났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때가 되면 억지로 떠들어대는 월드컵 소식은 정말로 속보이는 것이다. 그것 말고도 인도네시아 강진사건을 계기로,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의 지진안전점검을 더 심층보도했어야 옳다. 이젠 미래로 갈수록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일방적 대중매체는 쇠퇴하게 되어있다. 개인의 삶의 질, 정신적 만족(쾌락보다 한차원 높은 자아실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벤트와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다. 이미 그것을 구현해 낼수 있는 문명과 인프라가 갖추어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이 시대 최고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혼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이 시간에 주입식 교육(TV 시청)을 받으려 하겠는가? ㅋㅋ 나도 TV 수신카드가 둘이나 있지만 TV는 잘 안보게 되더라.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가질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로 무궁무진하다.

제목: 내티즌 댓글

포탈에서도, 정부가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블로그에서 축적되는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포탈이 그랬는지 개발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목적이 부합해서 블로그가 망가졌다는 거죠. 포탈은 자신들의 사업을 비판하는 블로거들이 눈엣가시였고 개발자들은 블로그 소스를 다른 포탈까지 확대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던거죠. 그리고 포탈 입장에서선 정부당국자들에게도 아부하는 기회가 되고 특수목적(정책홍보나 유명정치인을 홍보)의 용도로 블로그를 변질시켰던 것이죠. 블로그가 망가지고 특수목적으로 이용되면 그나마 정부에서 포탈 블로그에 홍보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포탈은 사업이 되고 눈엣가시같은 네티즌들의 무료제공 블로그보단 큰 사업이 된다고 생각했던거죠. 이렇게 블로그가 망가지면 네티즌 저널리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싫어할리 없고 당국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포탈들은 쇼핑몰을 비롯한 기타 사업전체를 이끌어 가는 것이 좀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주력하고 있었던 인터넷미디어 사업도 한결 수월하게 이끌어 갈수 있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은 협력 언론사들의 뉴스기사로 미디어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저널리즘이 더 파워가 있게되면 자신들의 미디어권력은 그만큼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목: 중국의 역사왜곡 댓글

말씀은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만 과거 역사에선 만주일부가 고구려 땅인줄 배워서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현재는 엄연히 중국땅입니다. 죽은자식 불알만쳐봐야 아무소용없는거지요. 이렇게 따지를 걸면 걸수록 중국과의 관계만 나빠집니다. 물론 국경이 정치인들 사이에선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사이엔 서로 왕래만 활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뺏어와야겠습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조선족 자치주 같은 경우는 조선족외에 한국과 북한의 문화도 담는다고 하니 별로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요...

제목: 인터넷119 신고글

지난번에 제가 천리안이 사용자 윈도우환경 작업표시줄에 악성팝업창을 여러개 띄우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신고했습니다만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렇게 증거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관계법령에 근거해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리안이 광고수입을 위하여 띄우는 새창띄우기(5월3일과 4일, 6월12일 GSestore란 쇼핑몰 이름의 빈 팝업과 자동광고창생성팝업)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천리안 창을 닫으면 광고화면이 하나 뜨더니만 이젠 아예 클릭할 때마다 여러개의 빈 팝업창을 띄워 사용자의 작업관리자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개의 창을 닫으려면 일일이 창을 선택해 닫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는 엄연한 개인컴퓨팅 생활 침해이며 대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바 하루빨리 관련법규에 근거해 이를 완전히 근절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천리안은 지능적으로 경찰서나 정보통신부가 쉬는 주말이나 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말 혹은 밤에 집중적으로 광고팝업을 띄우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익스플로러 상의 HTML 소스상에서 새창띄우기 기법은 별도의 승인 없이도 실제로 구현 가능한 코딩방법이고 XP SP2 상에선 팝업차단 기능으로 제기능을 못하긴 하지만 일반 98사용자나 2000사용자들에게 아주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즉 정통부에선 천리안의 팝업 광고를 예의주시하여 많은 인터넷이용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신) 첨부한 자료중에 chol_add.jpg 의 그림에서 빨간색 사각형이 무차별하게 띄우는 광고팝업을 나타낸 것이며 나머지는 index소스와 해당 팝업을 띄우는 html소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temporary폴더에서 찾은 것이며 잘 분석해 보면 windows.open() 스크립트로 새창을 띄워 창을 닫을때 광고를 띄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수고해 주십시오.

[근거법령]

영리목적 자동광고성 프로그램 설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5를 확인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처벌로서는 동법 제67조에 과태료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목: '네티즌' 말살어 정책 '누리꾼'

요사이 인터넷 뉴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다. TV 뉴스에도 이 얘기가 여러번 나왔다. 다름아닌 '누리꾼'... 장사꾼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닌 '누X꾼'. 다분히 저속하고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느낌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란 컴맹단체가 선정한 신조어라니 알만한 탄생배경(?)을 가진 단어이기도 하다.

말은 어떤 객체의 기호와 추상성을 대변하고 있어서 한번 형성된 이미지가 특정한 형태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자연적으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국어연구원의 '누X꾼' 제정은 의도적으로 네티즌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매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더욱이나 문제는 인터넷 뉴스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이 단어를 요사이 부쩍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네티즌들 중에는 저열하고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네티즌들을 "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비열한 짓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우리나라 기자 연합회가 이 "네티즌"이란 용어를 "누X꾼"으로 쓰자며 천인공노할 시대역행적 "합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추궁한 기자에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정치개혁을 이뤄온 IT의 전문가들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그들의 공로를 잘 알면서도 자기 아들에게도 붙이지 못할 '누X꾼'이란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언론계와 국어학계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게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IT열풍(이런 반네티즌 세력의 저항으로 지금은 잠잠해졌지만)의 신조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취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정략적 의도든 언어학적 의도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제목: 국민은 "누리꾼"이 아닙니다.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들은 그 기사를 쓴 '기자' 끝에 '꾼'을 붙여 '기자꾼'이라고 명명해야 합니다. 아님 '알림꾼'이라 명명하든지...네티즌들 중엔 대통령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글썽씨가 뛰어난 논객도 많고 그외 일반적인 국민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싸잡아 '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군중들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대통령도 '나라꾼', 판사도 '가름꾼'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류의 기사는 절대로 인터넷 매체에 올라와선 안됩니다.

전 '누X꾼'이란 용어가 탄생할 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누누이 주장했지만 언어는 필요 이상으로 의미를 격하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훼손시켜선 안됩니다. '네티즌'이란 용어의 의미가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각인되게끔 해야 하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그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네티즌'이 비록 외래어이긴 하지만 민주적이고 대도시의 커뮤니티같은 냄새가 나는, 나름대로의 함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바꾸기도 좋지만 전보다 다 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용어를 억지로 변용하려 한다면 스스로의 열등감이 빚어낸 자기비하밖에 되질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누X꾼'이란 말의 탄생배경은 들었지만 언어사대주의라서가 아니라 '네티즌'이 좀더 세계적이고 우리나라 인터넷인프라에서 적합한 용어로서 이미 자리잡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들이 정말 싫습니다.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자가 있다면 저같이 실명을 뒤흔듯하게 밝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불러 주십시오.

<추가>

국민을 누X꾼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럼 국어연구원도 '한글쟁이들'이 모인 '글누리집'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도 못붙일 이름인 '꾼'이란 용어를 민주적 시대인 국민들에게 감히 붙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런 책략적 시도가 횡행되는 미디어 정책에 전 동참하지 않으렵니다. 이것이 '네티즌권력'을 따돌리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크나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어연구원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할말이 없는지 나중에는 결국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 —

제목: 보일러 기사는 아니지만...

우리 아파트 보일러는 난방과 순간온수 기능이 있는 대성셀텍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른 평수

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33평 기준입니다)

난방은 아시다시피 연소(가동 표시등)와 비연소가 반복되면서 방이 뜨거워지는데 연소시간이 길수록 가스비가 많이 나오고 비연소 기간이 길수록 방은 차갑고 난방비는 절약됩니다. 그걸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우측 시간/온도 스위치와 함께 전면 상하조절기로 조절해 주는 방식입니다.

순간온수는 온수나 난방모드 상관없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관에 물이 흐르게 되면 보일러가 연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난방모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정지가 되고 뜨거운 물을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난방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본통에 있는 온도계를 약 80도 가까이 셋팅해 두고 거실 온도계를 80도이상으로 해 두면 뜨거운 물을 쓸수가 있는데 물이 뜨겁지 않다고 한다면 거실 온도계를 80도 이상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간온수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엔 찬물이 나오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게 되는데 뜨거운 물을 이어서 쓰다가도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 수도관의 물은 끓기고 보일러 연소가 얼마간 더 진행된뒤 멈추게 되는데 이때 보일러 내 순간온수통의 물은 더 뜨거운 물로 한번더 가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 수도꼭지를 열면 거실바닥 배관에 흐르고 있는 뜨신 물이 나오고 나서 이어 더 뜨거운 물이 콧 쏟아지고 난 후 찬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후에 순간온수통에 채워진 물이 뜨거워질때까지 처음보다 약간 적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이 일정온도로 뜨거워지면 다시 이전온도의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뜨거운 물이 시원치 않다면 보일러 왼쪽 이물질을 거르는 필터를 열어 청소해보시고 겨울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씩 흘려 뜨거운 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정말 물이 너무 뜨거워서 걱정인데 겨울에 물이 뜨십지 않은것은 보일러의 가열용량 때문입니다. 겨울의 수도관에 흐르는 물은 매우 온도가 낮는데 그걸 데우려면 몇배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일러의 용량이 달릴수 있다는 점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정도는 뜨거운 물을 쓸수가 있는데 빈망님의 맥은 뜨거운 물이 만나오나 보죠? ^^; 이렇게 해도 안되면 대성셀렉트 보일러에 A/S신청을 해보세요. 보일러 벽면에 아마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글이 게시되지 않아 도움드리기도 어렵네요. 그럼 이만...

제목: 정부의 세금정책

그 과장월급이라는 것도 어찌보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그 많은 세금 걷어서 장애인 재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과장월급에서 나가는 매월 100만원은 귀하고 귀한 돈이지요. 근데도 정부는 그들에게서 엄청난 세금을 떼어 갑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제 형 얘기입니다. 힘들게 일해서 정부에게 뜯기고 어려운 동생인 저한테 도와주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발표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는 13조 3항에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고 52조 별칙 1항에 보면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되어 있다.
(MBC의 보도가 맞았음)

허나 오늘 발표에 의하면 정부가 법규정을 묵인하고 황교수의 합법성을 인정하였으니 이는 정부부터도 현행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조장한다고 할 수가 있다. 오늘 복지부 발표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남득할 수 없는 발표임에 틀림없다. 올 3월에 발효된 법률이 만들어진후 지금까지 한참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요사이 불거진 일과 무관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개정할 법률이라지만 인정할건 인정하고 바르게 설명할건 설명해야지 이래서야 되겠는가? 정말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대목이다. 나도 국가적 사업은 중요하고 황박사님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다. 허나 이런 어처구니없는 절차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어이가 없다. 그것도 동네아파트 동대표도 아니고 국가중앙정부가 그러하니 더욱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빨리 정정 발표를 하거나 바르게 해명을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정말로 너무나 해네... _ _

제목: 실버세대와 IT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행복도시...

산업화 1세대인 우리 부모세대들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산업화 2세대들도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행복도시는 절대적으로 실버산업과 땔래야 땔수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두 세대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주거/의료/IT인프라/소호(SoHo)시설/녹

지/건강/음식 등이 어우러진 새로운 실버타운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물론 그밖에 바이오 산업도 중요한 테마이긴 하지만 바이오는 곧 의료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황박사 주변에서 일고 있는 생명공학 연구가 자연스럽게 행복도시의 의료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국가적 인프라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시에 너무 많은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비용의 문제와 도시 이미지 형성에도 방해가 된다.

이제 산업화 2세대들도 정보화 시대를 만끽하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부모세대인 산업화1세대를 부양해야하는 현실적 위치에 놓이게 된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동태는 현재 출산율이 저하되고 극도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도시의 개념도 이같은 사회적 변화를 따라 반영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또 얼마나 성공적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업의 성패도 좌우될 수 있다.

문제는 실버타운을 구현하는데 있어 정부가 어디까지 복지행정의 역할을 하고 개인은 어디까지 이용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거는 임대와 자가의 형태로써 지금과 같은 형식을 띠면 되고 의료와 건강시설 역시 현행과 같이 정부가 의료보험에서 부담을 하면 되고 IT인프라와 SoHo(Small office home office)는 개인이 부담하되 사회적으로 실질적 기여가 있는 조직을 보조해 주는 형태가 가장 좋지 않을까 사료된다. 녹지 부분은 공공분야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되 충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음식점 등은 상업공간을 조성해 자연적으로 민간업주가 들어오도록 유도한다.

다만 실버타운의 특색답게 임대료(아님 자가소유)와 복지부담료 형식으로 한꺼번에 부과하는 방법과 위와 같은 개인적 부분의 부담을 개별적으로 부담하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어느 하나로 결정하지 말고 동시에 시행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가지 빠진 주제가 있는데 교육시설(부대시설)이다. 공립학교설립도 중요하지만 실버타운에서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이란 개념의 여러가지 주제의 교양 및 직업교육시설이다. 이런 교육시설에서 양산된 정보가 IT인프라를 통해 전국으로 파급될 수가 있고 소호시설을 통해 사업적 모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상이 필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도시의 청사진이다. 조금은 현실적이라고 볼수가 있다. 추진위에서 꼭 참고해 실제적으로 구현되길 바란다.

제목: 수필 댓글

예전에 국민학교때인가 중학교때 잔잔한 파스텔 그림이 곁들인 수필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냘픈 아이가 그려져 있는... 참으로 감동어린 동심이 그대로 숨쉬고 있는 작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이젠 그런 기억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듯 하는데 지금도 그때를 회상해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런 동심을 꿈꾸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차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하나로통신의 바이러스 무료검사 전화...

오늘 하나로 통신에서 또 바이러스 무료검사를 해주겠다며 누나네집 명의로 전화가 왔다. 나는 예전에 PC닥터의 위약금 문제로 정통부에 직접 찾아가서 무효라는 확인을 듣고 왔던 하였지만 이 전화를 받는 다른 분들은 꼭 위약금 여부를 확인받고 서비스를 받길 권고드립니다.

통신회사가 워낙 이윤만을 추구하고 소비자보호와 권익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약관 하나만 하더라도) 저도 오늘 전화에 그냥 안하겠다고 말하고 끊었는데 혹 다른 분들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사항을 꼭 확인하고 무료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노파심에 몇자 적어봤습니다.

제목: 한나라당 지지 댓글

비록 지금 인터넷 인프라를 민주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마음놓고 축적할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건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거란 생각이 듭니다. 양질의 블로그가 하나둘씩 폐쇄되기 시작한 근원지도 인터넷기업인 포탈이었고 "네티즌" 말살어 정책인 "누리꾼" 구호도 보수 언론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 전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존 정치권과 네티즌들과의 힘겨루기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는 제 생각엔 개개인 몫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나 스스로를 포함한 국민들 전체라고 볼수 있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때 우리사회는 점점더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목: 중국의 동북공정

한일간에도 그랬지만 역사학자들끼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공동집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아전인수식 역사왜곡은 국가간 마찰을 불러올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파렴치한 행위다. 중국도 이점을 명심하고 이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제목: 주택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를 신청하는 노인은 이미 집이 자기 주택이 아닌 이상 재산세 감면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집을 저당팔아 생활하는 노인들에게도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제목: 한국은 무서운 경쟁자

싱거운 뉴스군. 경쟁이라는데 기술경쟁이 되어야지 자유무역 수출입경쟁인 것인양 보도되고 있군요. 그리고 농산물은 어떤지 몰라도 IT나 전자및 항공산업 등 첨단분야는 엄청난 규모의 수입을 해오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_ _ _

제목: 적십자사의 혈액관리실태

참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실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예전에는 혈우병 치료제를 만드는 혈액에 치명적인 병원균이 들어 있었고 이번에는 말라리아균이 있었다는걸 알면서도 수혈을 시켰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아무리 남의 일이지만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목: 20배 빠른 광랜

혁실적인 기술이라도 실용화 단계에서 경제성에 부딪혀 그 기술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표적인 것이 광랜같은 초고속 인터넷인데 그네들이 선전하는 속도는 100메가급이지만 실제속도는 40~50메가 수준이다. 이것이 기술력과 실용화단계의 괴리성이다.

제목: 행자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사실 공고

○ 행정부 교섭대표인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 위원장 이철연)과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 : 위원장 전재균)이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접수/검토하여,
- 9월 11일(월)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각 시/도 공문 등을 통해 공고하였다.

○ 행정부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9.11~9.18)중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기간중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공노) 등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노동조합측에서 제출한 교섭과제에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이외에 단체행동권 보장, 대국회 교섭권 보장 등 비교섭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 - 155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1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 다 음 -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철연)
-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재균)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9월18일 18:00한)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10호, Fax. 02-2100-4186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으로 문의(☎ 02-2100-3329)하시기 바랍니다.

올릴 문서2.txt

이게 노동부에서 취합한 다음 행자부에 전달해서 공고한 내용이라네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도 노동부에서 노조인정증을 받은 상태고 교섭내용인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받게 되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이고 뭐고 일반 노동자단체인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같이 정규직들이 장벽을 두르고 때를 쓰게 되는 사회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되는데 이는 공무원들까지 그들과 같이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받겠다는 심산이며 이는 반드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기업이나 정부나 사회의 취약계층과 비정규직을 위한 크고 작은 구조조정들이 정규직들을 대변하는 노조들의 강성으로 그 시도가 좌절될 수 있는 매우 이기적인 사회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단체교섭을 하기전에 국민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TV에 나오는 전세자금 대출, 그게 뭐 정책인가? 이자 쳐주고 해주는 정책 안 받고 만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끝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단체행동권은 절대 안된다. 법적노조까지 인정받고 교섭권까지 인정받았으면서 단체행동권까지 욕심을 부리다니... 난 죽어도 공무원노조 인정 못한다. 뻔뻔한 노모들. --

공무원들이 데모하면 국민들도 데모할 것이다. 나부터 뛰쳐나가 데모한다. 공무원들 데모하는데 가서 나 혼자라도 분명히 말할 것이다. 당장 집어 치우라고... 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장담 못한다.

제목: 대북송전 사업

이젠 송전사업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협력사업으로 가야 한다. 즉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수지타산을 고려하여 천천히 진행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목: 오만한 북한정부는 들어라

아래는 오늘 낮 12시에 방송됐던 MBC뉴스의 기사내용이다.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북한 체제 당사자들의 이중성과 배은망덕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떠들고 나서는 정작 ABC기자한테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뻔뻔한 이중성과 협박, 정말 그 체제 당국자들의 부도덕성과 교활함에 정말 년절머리가 난다. 지금까지 남한이 북측에게 남북협력기금에서 온갖 비료 및 식량, 시멘트, 전기 등 수조원에 달하는 대북물자를 일방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북한 장성이 했다는 것은 남측을 민족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지극히 전략적이고 이용 가치가 있는 이웃국가로밖에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본 필자는 북한의 불량한 대남정책에 분명하게 분노하는 바이며 이는 차후에 있는 UN제재 및 남북협력사업에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UN제재를 통해서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북한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어선 아니되며 상기와 같은 인식이 깔려있는 북한당국자들에게 어떠한 물자도 일방적으로 지원되어선 아니된다고 본다. 이젠 금강산사업도 철저한 수익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을 따져서 존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개성공단 사업은 협력사업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만일에 북한이 남측에게 어떠한 핵도발의 위협이나 발언으로 경거망동을 한다면 남측도 그에 상응하는 美핵우산이나 자체 핵개발로서 그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북측 장성이 전쟁이 한반도에서 날 거라고 언급한 이상 핵우산이 불가능하면 지금이라도 핵개발에 남측도 발빠르게 착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핵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핵억지력에 문제가 생긴다.

모든 불행의 씨앗은 체제당국자들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서 비롯된다. 언론의 책임이 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말이다. 이젠 남측도 죽음을 불사하고 북측의 오만한 도발적 언행에 일대일 대응해야 하며 전쟁이 핵이든 무엇이든 상호억지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군사력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체제당사자들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앞으로 경거망동을 삼가고 주변국들의 심사를 건드리는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하는 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북이 핵을 만약 남측에 사용한다면 북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점 명심하길 바란다.

=====

"굴복 강요시 전쟁"

2006. 10. 20

● 앵커 :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북한군 장성이 밝혔습니다. 굴복을 강요하면 전쟁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진숙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리찬복 북한군 상장은 북한에서 취재중인 A B C 기자에게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굴복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자 : 리찬복 상장은 이어서 어디서 전쟁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 상장은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는 말을 중단해 달라면서 이는 북한국민 모두가 부시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즉각반응을 보였습니다.

● 기자 : 스노우 대변인은 이어서 지역이 전쟁 직전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습니다.

제재 강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간 말의 전쟁도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공방과 함께 북한 정권교체론까지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 B C 뉴스 이진숙입니다.

[세계][뉴스투데이]이진숙 특파원

제목: 대통령임기말 국정원과 언론의 줄서기

요사이 국정원에서 불거진 뉴스를 방송들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어려운 핵문제 사태속에서 화해정책을 펼쳐왔던 청와대로선 매우 당혹스런 일이 아닐수없다.

그래서 내부단속겸 국정원장이 교체되고 소폭의 개각이 있었지만 이런 국정원과 청와대의 불협화음, 또 언론의 식상한 색깔론 특필은 예전서부터 죽 있어왔던 전형적인 임기말 줄서기의 한 행태일 뿐이다.

대선구도가 여당한테 불리해질것 같으니까 지금에서부터라도 월성실은 떡잎에 줄을 잘 서서 차후에 단행될 인사나 직책을 보장받겠다는 알뜰한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있는한 나라의 미래나 발전은 없다. 그들은 나라의 흥망엔 관심이 없고 단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눈앞의 작은 기득권에만 급급하여 일을 그르치는 미꾸라지같은 존재다.

어제의 뉴스를 보니 민도당이 평양에 도착한 소식은 잠깐 보여주고 그 뒤냐 60년대애나 있을 법한 '공작원'과 '간첩'이란 용어를 남발하며 지켜온 색깔론을 펼치는데 두 눈뜨고 못봐주겠더라.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 그것을 바라보는 언론과 미디어, 그 속에서 일하는 당직자들의 이해관계, 북한 체제와 우리 체제의 속성등 여러 구조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석하지 않으면 이들의 어설픈 공략에 말려들기 쉽상이다.

이젠 제발 공무원을 비롯해 미디어의 속보이는 줄서기는 사라졌으면 싶다. 우리는 그 점을 항상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제목: 긍정적인 생각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언론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의 효용성에 대해 듣곤 한다. 건강에 좋다든지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던지... 오늘도 아침경제뉴스에서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뉴스가 또 흘러나왔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 사회에 불공정한 것들이 곳곳에 도사려 있고 부조리가 팽배해 있는 상태라면은 세상에 가장 낙천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은 억지로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것저것 신경쓰지 않아도 될 만큼 긍정적으로 변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숨은 곳에서 부정적인 사회의 면면을 파헤치는데 집요하게 앞장섰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제목: 국회 비정규직 법안 3개 의결

국회홈페이지에 가보니 위 기사 법안을 비롯해 30 여개 법안이 바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것 같더군요. 왜 국회는 해마다 본회의에서 버락치기 의안가결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정부에서 제출한 새법안도 무지 많다고 하는데 그 외 수많은 민생법안 및 모범법안들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엇그제 대통령도 국회의 무협조에 무지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안정보시스템의 주요내용에 실려있는 법률안명 버그도 수정하고 좀 국회가 바빠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세금이 곧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희집도 중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세금에 치중하고 분양가 규제같은 정작 중요한 정책에는 소홀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데를 가봐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대통령부터가 예전에 분양가공개는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을 여러번 하였고 공개는 아니더라도 규제를 하여야 집값이 잡힐텐

데 얼마전 분양을 시작한 판교부터도 주변시세를 뛰어넘는 고분양가로 서민의 내집마련꿈을 허탈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택정책을 방치하고선 종부세 같은 세금건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굵지 않는 거지요. 집 가진 저도 보기에 안스러운데 집없는 서민들은 얼마나 속타고 허탈하겠습니까? 그걸 아셔야죠.

집값이 올라야 종부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분양가규제엔 관심없고 종부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듯 보입니다. 즉 종부세는 세대별합산 6억원 이상 주택을 가진 가계에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수록 많이 걷히는 셈이 되는 거지요. 좀 속보이는 짓을 뻔뻔스럽게 포장하고 있는듯 해서 한마디 해보았습니다.

제목: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복지위 통과

김대중 정부당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홍보하기를 납부요율 4.5%에 평균급여의 60%까지 보장한다고 떠들었으면서 이제와서 이런 파렴치한 기사나 작성해 올리고 국민연금 담당공무원들은 정말 철면피같은 이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정책을 홍보하려면 거짓없이 성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거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기금을 벌려놓기에만 급급해 국민을 기만한 죄는 영원히 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노후대비기금이기 때문에 요즈음 같이 독신 직장인들이 많은 상황에선 얼마나 많은 잉여기금이 생기고 예비율이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나 야박하고 돈독에 오른 정부란 생각밖에 안드네요.

제목: 2007년 1월 11일자 주택법 개정법률안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건설회사가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협의 매수하여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매수가 안될시엔 건설사가 토지의 매입을 법원에 의뢰(공탁)하게 되어 있다. 허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훨씬이전부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특별히 건설회사가 법원에 매수청구권(아까 말한 지주로부터의 토지 매입을 법원에 의뢰함)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때 그 지주의 토지 보유기간을 개발계획발표 3년이전에서 10년이전으로 변경하고 상속받은 땅일때는 물려준 사람의 소유기간도 합산해 산정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아래와 같다. 즉 상속과 피상속 기간을 포함해 개발계획발표가 있기 3년전 이후부터 땅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가 법원에 의해 강제수용될 상황에 놓일수 있다는 얘기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르면 개발호재를 노린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개발계획을 발표되기 3년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으며 10년 이전이란 과도한 매수청구권 제외설정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란 생각이 앞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말하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이 어렵게 기술된 법률 조문이 어떻게 국민들의 재산권과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의 해설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어이가 없을 뿐이다. 필자도 건설교통부 담당공무원과의 짧은 통화로 얻은 지식이지만 터무니없이 어려운 말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조문이 어떻게 국민들과 직접 연관이 돼있는 실생활과 호흡할 수 있는 법률 내용인지 해당 부처와 법제처는 심각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아래 내용은 2007년 1월 11일자 전자관보에 실려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중략-

다.사업주체의 매도청구 제외대상(법 제18조의2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 (현행은 "3년 이전"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인 대지의 소유기간 산정시 대지소유자가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도록 함.

-중략-

제목: 소득세에 관하여...

요즈음 주변 직장인들 보면 참으로 불쌍하다. 힘든 회사에서 뼈빠지게 일해서 탄 월급으로 자기 식구를 벌여먹이기도 힘든데 주변의 나이드신 부모님이나 병으로 일 못하는 식구들 벌여먹일려고 적지 않은 돈 부쳐주고 이렇게 원천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시켜 연봉의 10% 가까이 떼이고, 그리고 나서는 어디서 구한 통계인지 숫자 들먹이며 선진국에 비해서 적다고 너스레를 떠는 정부를 보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통계인지부터가 의심스럽다. 요새같이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이러한 통계가 과연 의미가 있는것인지를 반문하고 싶고 정부는 이렇게 변명하기에 앞서 소득세를 걷어 직장인들이 힘든 부양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를 지원하는 정책엔 소홀하지 않았는지 조용히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젠 제발 직장인들한테 발붙을 생각만 하지말고 직장인들이 의욕을 갖고 산업현장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바침하고 정부 자신도 구조를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02-788-3024 장재혁

제목: 내신비율 강화..

정부가 내신의 비중을 강조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입시전형을 마련하는 쪽으로 간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교육을 비롯해 수능준비를 위한 학원교육이 입시지옥으로 변질돼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내신의 비중을 높이고 수능및 논술이나 기타 구술면접도 전형요소에 포함시키돼 내신에서 단순암기식 시험이 평가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 수업기법을 통해 평가방법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쯤되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대는 2007년 컴퓨터 시대인데 학교교육은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곤 올바른 인재가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세계화시대입니다. 교육적 투자에 있어 현실에 안주하고 방심한다면 글로벌경쟁에서 도태되기 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고령화,저출산)을 교육문제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제목: 중부세 내고 싶다는 댓글

yoopm님 중부세 내고 싶으시다구요? 현실을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아파트 시세를 보면 전세가는 하락하고 매매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나중엔 그 비싼 중부세 내다가 집팔고 싶어도 꿈쩍없이 세금에 먹히고 맙니다. 즉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님이 호가만 오른 집값에 만족하고 말 분이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참,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으니... 그럼 강남 운운하는 분들은 나중에 집값 폭등한후 팔 때 제일 먼저 팔고 이사갈 분들이시겠네요. 그때가면 한달에 꼭해봐야 한 건 매물 나올까말까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들 뜻처럼 맨 먼저 이사가기도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미래 부동산 거품을 논하는 이유가 다 까닭이 있습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허세에 날뛰어 실종된 매물의 가격 가지고 좋아한다면 그것도 미친 짓일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어느 분 이름처럼 정석대로 각자가 아파트 발전을 위해 조금씩 노력해 나가면서 아파트의 가치를 끝없이 고양해 나가는 것이 진정 미래에 우리 아파트의 모든 소유자분들, 또 그 시점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매수자 분들이 제 값을 받고 아파트를 거래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부터 아파트를 아끼고 조금씩 분야를 정해서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젠 제발 막연한 아파트값 올리기 경쟁은 자제할 때라고 봅니다.

제목: CCTV 2억 5천만원 댓글...

2억 5천이라구요? 정말 간쟁이가 부었구먼. 그사이 야그야금 1억원이란 돈을 올렸네요. 기존 CCTV 장비 활용한다고 하면 서명해주려고 했는데 정말 해주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놀이터 CCTV도 관리안하고... 기존 CCTV나 잘 관리할 것이지 정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가네요. 그렇다고 단가, 수량, 품목 정해서 입주자들에게 배부하는 것도 아닐테고 뭐 제대로 한가지라도 잘 갖춰서 추진하는게 없네요. 너무 속보이는 사업이자 화만 나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금액을 내건 추진 세력과 교사자들의 경을 칠 일입니다. 한 세대당 16만 8691원을 지출하는 사업이란게 말이 됩니까? 컴퓨터 한대 업그레이드해도 되겠네요. 헐~

제목: 아파트 매매담.

저같이 무지(?)한 주민들을 위해서 yoopm님 같은 분의 생동감(?) 있는 매매담을 듣고 싶다는 거지요. 여기서만 떠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실제로 만나서 문제점이나 기타 동감하는 것들을 얘기하면 아파트 발전을 위해 서로 좋은 것 아닐까요? 왜 싫으실까~~~~ ^^

yoopm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대충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이해가 가겠네요. (중략) 그러니까 뽀뽀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님의 뜻도 일리가 있습니다. 황우석 주식 같이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그 것과 비슷해서 실제에 비해 너무 고평가 되는 것도 아니면 반대로 저평가 되는 것도 문제이지요. 하지만 전자는 결국 무수한 피해자를 만들어냈지요. 후자는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삼성전자나 포철같이 높은 가격대로 우량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해석이 어떤가요 yoopm100님?

제목: 독일, 공보실 취재 사례를 읽고...

그래, 공보관 혹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고 시간도 충분히 준다는 것은 매우 좋은 제안이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모든 기자들의 의혹이나 질문을 해소하려면 각 부서 각 보직 공무원 수에 비례하는 많은 공보관이 필요하게 되고(공보관 몇명이 모든 공무원의 일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건 또한 이종으로 인력을 소모하는 세금낭비라는 점이다. 그밖에 인허가에 관련한 취재라든지 기타 공무원 책임소재 및 비리에 관련한 취재를 한다고 했을때 공보관들은 당연히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내부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점이 바로 이번 통합 브리핑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사전 허가와 협의라는 것이 말그대로 취재 제한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변명을 계속하는 것은 더이상 그 명분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진다. <http://run.blrun.net/>

이 기사에서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에 참여하고 그 내용이 국회에 보고된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이런 상황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정부의 주장이 정당화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다. <http://run.blrun.net/>

제목: 309동 동대표 양진열

회의장에 참석한 주민들 생각해서라도 질문시간을 줘야지, 뭐요 서면으로 제출하라구요? 저도 예전에 동대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지만 그런 회장들 보면 정말 밥맛떨어집니다. 신건삼 회장 같은 경우는 발언을 요청해도 시간을 주겠다고 하고선 회의 끝에게선 입 싹 닦대요? 몇번 회의에 실랑이 하다 정말 재수없어서 그때부터 참석을 안했죠. 우리 아파트 동대표회장의 수준들이 다 이래요. 그 놈의 회의도 화상카메라 사놓고 일절공개 안하고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보면 정말 소수의 열심히 열변하는 동대표님들이 꼭 계신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싹 무시되고 거시기 뭐냐 학급회의처럼 거수로 손들어서 땅!땅!땅! 의결하고 끝이더라구요. 그리고 민감한 사안 같으면 연기해서 몰래 회의열어 처리하고 뭐 그런 수법들이 동원됐었죠 과거에 많이....

제목: 우리 뽐기니 이런말 쓰지 맙시다. 댓글...

응삼님은 제가 본문에서 한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신것 같은데 물론 같은 제품을 사도 사용환경에 따라 오래 사용할 수도 일찍 고장나서 AS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이상이 있을 때마다 어떤 소비자들이 "뽐기를 잘 못했다"는 말을 험사리 할 수 있겠느냐 그말이죠. 이건 순전히 제조사 내지 용산유통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젠 그런 "뽐기"란 말로 "운이 나쁘다"는 식으로 다나와 여론을 조성할게 아니라 책임있는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글을 썼습니다. 저도 안되는 제품을 사서 용산엘 왔다갔다 한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판매처에서 차비주는것도 아니고 테스트하느라 심력낭비, 시간허비 눈꼽만치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젠 제조사나 판매처 모두 양품을 제조, 판매하는데 전력질주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제목: 파워서플라이의 효율...

전 전력효율이라고 한다면 소비전력과 절전모드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파워서플라이의 효율이란게 있나 부쵸?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전력손실이 있는것 같은데 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할듯...